

DESIGN

Vol.429 2014/3 www.monthlydesign.co.kr

Special Feature 2 2014 디자인 대학에서 가려 뽑은 90명의 유망주 **Talk** 고진혁, 감기조의 지속 가능한 협업

Inspiration 더 이상 장식은 범죄가 아니다, 디지털 크래프트 그래픽스 **Zoom in** 애플 맥킨토시 출시 30주년 기념 캠페인

429



제시카 히시(Jessica Hische)가 디자인한 반즈&노블 클래식 시리즈.

Special Feature1

기업 디자인센터는 어떻게 일할까?

How Do Corporate Design Centers Work?





뉴욕 마천루에 선
한국형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

최병훈

“그들에게 없는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Profile

1952년생.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홍익 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가구 디자인을 공부했다.
1980년대부터 아트 퍼니처를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2014년까지 다운타운
갤러리, 프리드먼 벤다 갤러리 등 서울,
파리, 뉴욕을 오가며 총 17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1987년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상,
1996년 코리아디자인어워드, 2007년
서울리빙디자인페어어워드 대상을 수상했고
비트라디자인뮤지엄, MoMA,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최병훈
교수는 한국에서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대량생산품과 전통 공예품만이
가구의 모든 것처럼 여기던 시절, 그는 예술을
결합시킨 가구 디자인으로 제3의 길을
개척했다. 특히 전통미를 반영한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인으로서의 이례적으로 파리의
다운타운 갤러리(Galerie Downtown)에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갖기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최병훈의 디자인
세계는 여전히 진화 중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뉴욕의 메이저
갤러리 중 하나인 프리드먼 벤다(Friedman
Benda)에서 개인전 <일필휘지 In one
stroke>를 열며 관록을 과시한 것. 이처럼
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묻자
최병훈은 “자기다움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답을 내놓았다.

글: 최명환 기자, 인물 사진: 정현석(팔팔스튜디오)

처음 아트 퍼니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
합니다.

특정 작품이나 스타일에 매료된 것은 아니었습
니다. 시대의 큰 변화적 흐름을 감지하고 작품을
통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자연스럽게 아트 퍼니처를 만들기 시작했죠. 예
술은 언제나 새로운 활로와 가능성을 마련해줍
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걸친 산업혁명 당시 기
계화의 광풍에 밀려 공예의 가치와 의미가 쇠퇴
해갈 때도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는 공
예를 부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을 선택했
어요. 제가 아트 퍼니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80년대는 이전까지 주류를 이뤘던 모더니즘
이 차츰 쇠퇴의 기미를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당
시 통일성과 확실성으로 대변되던 모더니즘의 종
언을 바라보며, 목공예나 가구 디자인 분야에 새
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술이 그
길을 열어주리라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던 만큼 어려움
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국내에 아트 퍼니처에 대



1

한 개념이 전무했습니다. 주변의 이해도 부족했고, 우려와 반대도 많았죠. 하지만 가구 디자인과 예술의 결합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1990년 홍익대학교 목공예과(현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아트 퍼니처 확산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1993년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었던 첫 번째 개인전이 성공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는데 대외적으로 아트 퍼니처라는 용어를 사용한 첫 번째 전시였어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작품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쳤습니까?

1970~1980년대에는 표현주의적 면모가 강한 작품을 주로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내면적이고 자연주의적이며 절제된 형태의 작품에 몰두했어요. ‘태초의 잔상’이 대표적이는데 이 시리즈는 한국적 미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서양의 태도

와 대비되는 것이죠. 건축을 보세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은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의 사찰은 산 깊숙한 곳에 자리해 자연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향한 겸양의 태도는 절제와 비움으로 나타납니다.

1996년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디자이너가 유럽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을 텐데요.

처음 전시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프랑스는 오랜 시간 예술과 디자인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다운타운 갤러리는 론 아라드(Ron Arad), 에토레 소사스(Ettore Sottsass)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소속된 프랑스의 메이저 갤러리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장식과 숙련된 기술로 무장한 이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을 배제한 가구와 더불어 표현주의 양식이 두드러진 초기 작품을 가져갔는데 현지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절제된 표현으로 담백하게

완성한 가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죠. 이들이 동양인 작가 최병훈에게 바라는 것은 화려한 표현이나 정교한 장식이 아니라 한국인 고유의 감성과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고, 이듬해부터는 표현을 절제한 작품만으로 개인전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0년까지 다운타운 갤러리에서만 여섯 차례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2007년에는 독일의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작품이 소장되기도 했는데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호응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디자인에 드러나는 구조적 긴장감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1 Afterimage of beginning 013-395, 2013 뉴욕 프리드먼 벤다에 전시한 대형 벤치. 평소 자연의 물성, 특히 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최병훈은 이번 전시에서 인도네시아산 용암석인 바잘트를 사용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자연석이지만 그 안에 검은색 용암석이 있다.



1



2

전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 중 한 기자가 내 작품을 보고 “이 가구가 과연 안전한가?”라고 묻더군요. (웃음) 이런 미묘한 긴장감이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고유의 절제와 비움, 여백의 아름다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신만의 정체성과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긴 생명력이 보장됩니다. 론 아라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광풍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간 대표적인 디자이너인데, 그 결과 트렌드를 좇던 수많은 디자이너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질 때도 강인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에 대해 강조하는 편입니까?

각자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최우선의 교육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서도호 같은 예술가들도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한국 디자이너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한 탓이 크며, 여기에는 획일적인 교육 방

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종만으로는 다른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없는 나만의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다원화된 시대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분명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이를 좇는 일군의 소비층만 형성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한국에서도 분명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뉴욕 프리드먼 벤다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뉴욕 시장에 진출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지난해 연이 닿아 전시에 초대받게 됐습니다. <일필휘지 In one stroke>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서예 정신에 바탕을 둔 대형 벤치 13점을 선보였습니다. 일 획(劃)이란 지극히 동양적인 개념입니다. 청나라 화가이자 이론가였던 석도(石濤)는 자신의 저서 <고과화상화어록 苦瓜和尚畫語錄>에서 일획론을 주장하기도 했죠. 바잘트(basalt)라는 용암석으로 하나의 획을

표현해 내면의 자기 성찰로 시작되는 동양적 세계관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아트 퍼니처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아트 퍼니처에는 디자인의 기능성과 예술의 독창성, 그리고 공예의 숙련된 기술력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트 퍼니처의 특징이 21세기 융복합 시대의 가치관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D**

1 Afterimage 07-244, 2007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의 이분법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 현재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서 소장 중이다.

2 Beyond the Image, 2013 연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화장대. 내면을 비취보고 성찰하는 불교의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히스토리 오브 드레싱 테이블 The History of the Dressing Table>전에 전시되어 있다.